

오피니언

다산포럼

염재호



이 확신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는 사립대학에 대해 업무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직무감사는 대학 자율성이라는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대교협 소속 150여 개 대학총장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대학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대학을 매도하거나,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숫자는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이에 힘입

교육당국의 근시안적 처사를 탓하기에는 너무 때늦은 감이 있다. 이제 대학도 신뢰받는 집단으로 거듭나야 하고, 우리 사회도 대학을 신뢰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대학을 비판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내몬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선결되어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대학을 공공재로 여기고 관심을 갖는 데 있다. 정부는 그동안 대학에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우리 대학생들은 자신들이 교육비를 지급하며 공부를 해서 사회에 공헌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교육은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만 생각하고, 지원을 게을리했다. 유럽이나 일본, 호주, 심지어 미국까지도 정부가 대학에 엄청난 지원을 하는 것은 대학이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의 최종 출구이기 때문이다.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받는 연구비를 제외하고 사립대학에 지원을 거의 못하는 정부는 최소한 사립대학의 이공계에 대해서 만이라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대학등록금이 반값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대학의 비리도 문제지만, 공공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학은 사회의 공공재(公共財)다

어 대학 진학률은 84%까지 올라갔다. 대학 진학률의 급등은 대졸 실업의 문제를 이어졌고, 대졸 실업은 지방의 많은 사립대학의 부실경영상태로 이어져 이들 대학들이 퇴출 위기에 내몰렸다. 마치 카드 대란이나, 저축은행의 사회적 혼란을 보는 것처럼 자율화의 물결에 편승해 폭발적으로 신설된 대학들도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된 것이다. 이런 대학의 부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선거구에 대학을 유치하기 위해 공약을 남발하고,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들과 자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학을 인가해 준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강의조교를 할 때의 일이다. 강의조교는 대형 강의의 학생들을 작은 그룹으로 나누어 매주 강의 주제와 관련된 토론을 하거나 학생들을 상담하는 일을 한다. 또 다른 일은 시험과 성적관리다. 정치학과에서 처음 강의조교를 할 때 시험지와 답안지를 들고 미국인 동료 강의조교와 함께 시험장에 들어갔다. 시험지와 답안지를 나누어주고 감독을 하려고 하니 미국인 친구가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배우어 물어보니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답안지 표지에 있는 명예규정(honor code)에 서명을 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은 명예서명으로 약속을 했고, 학교는 이들이 앞으로 미국을 이끌고 나갈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여기고 시험감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할 수 없이 교실 밖에서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며 동료 조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더 대단한 이야기를 들었다. 시험에서 만약 어느 학생이 책이나 자료를 참

고해 답안을 작성하다 발각이 되어도 교수가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교수가 생각해서 답해야 하는 시험문제를 내지 않고, 보고 써도 되는 문제를 냈기 때문에 교수에게 시험문제를 잘못 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레포트의 경우는 다른 곳에서 표절한 것이 확인될 경우 가차없이 학교를 떠나야 할 정도로 처벌이 중하다. 미국 대학이나 유럽에도 부실한 대학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학과 학생에 대한 사회적 신뢰는 이들의 자기 정화 능력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발휘하기에 충분한 토양을 제공해주었다. 반값등록금이라는 정치적 구호로 촉발된 전국 113개 대학에 대한 조유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되었다. 이 결과로 대학이 등록금을 과다책정하거나 비리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 인식

시설

현실과 동떨어진 청와대 지방경기 인식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전남 요트와 전북 사업의 호황을 예로 들며 지방경기 호전을 언급했다니 참으로 당혹스럽다. 김 수석의 이런 현실 인식 괴리는 지방의 폐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이 아닐 수 없다. 김 수석은 전남지역 마리나항만에 요트 300척이 다 있다고 얘기했지만 현재 목표 57척, 여수 소호 100척 등 2곳에 157척만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함평, 화진, 팽목, 완도, 남열 등 5곳은 개발 중이거나 밀그림만 그려진 상태다. 게다가 부유층에 국한되는 요트 소비를 지방경기와 연관 지은 점도 매우 부적절하다. 완도에 전복이 없어서 못 판다고 언급했지만 이도 사실과 다르다. 왜 생산량이 줄어 수출할 전복이 부족하고, 가격까지 오르면서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없게 되었는 현저한 현실이 있는 것인데도 말이다.

실제 이 지역은 조선, 건설할 것 없이 경기 바닥이다. 대불산단 대형조선소의 수주 감소와 중형조선소의 붕괴가 잇따르면서 올 상반기 20여 공장이 경매에 나왔는가 하면 업체 대표의 야반도주도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계도 고전하기는 마찬가지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종합건설업 조사'에 따르면 지역 공사를 지역업체가 맡은 비율이 광주 41.7%, 전남 33.3%에 그치면서 전년에 비해 각각 8.7%, 7.8% 감소했다. 지방경기의 한 축인 건설업의 침체가 지방경기를 끌어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경제수석이라는 사람의 지방경기에 대한 현실 인식이 이 정도라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경제가 고사 직전에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는 탁상행정으로 지방서민들의 고통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화학교 재산 광주시에 귀속시켜야

'도가니' 사태로 물의를 일으킨 인화학교 우석법인이 지난 11일 법인을 자진 해체하고, 재산을 전주고 사회복지법인인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에 증여하겠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또 시가 재산 증여를 수용하지 않고, 허가를 취소하면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강력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법인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있는 와중에 우석법인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안을 제시한 것은 그 저의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법인이 허가를 취소 당하면 재산을 증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행정소송을 전제로 한 재산 증여는 강제적 허가 취소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며, 재산 증여에 대한 사후 영향력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속내로 비춰진다. 행정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단 스스로 증여를 결정하는 것은 이에 대한 반증이 아닌가. 우석법인은 지난 1956년 법인 인가 이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 세금으로 운영돼 왔다. 지난 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 예산만도 40억 원에 이른다. 국민이, 시민이 주인인 셈이다. 법인이 마치 개인 소유물인양 재산 처분의 권한을 행사해선 안 되는 이유다. 광주시는 법인 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시민 정서서 감안해 당초 계획한 법인 취소 수순을 밟아야 한다. 물론 행정소송의 장기화나, 100% 승소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가톨릭 광주사회복지회가 신뢰를 얻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렇더라도 행정은 원칙을 벗어날 수 없다. 광주시는 영화 '도가니'로 촉발된 인화학교 사태가 법인 인가 취소와 사회복지법 개정에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법인 취소와 재산의 자치단체 귀속을 통해 장애인 인권센터 또는 장애인 성(性)교육장으로서의 활용 등 '인권메카'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주장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8



박행순

더싸인(Dasain)'은 모든 네팔인들에게 공식적인 대축제로써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두 주간을 걸쳐 지켜진다. 다만, 그 해에 부모가 돌아가신 사람들은 예외의 뜻에서 이 축제를 즐길 수 없다. 더싸인 이야기는 다양한 버전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하나같이 악을 이긴 승리를 기뻐하며, 악의 세력 아래에서 고통받던

네팔의 가장 큰 명절 '더싸인'

사람들을 해방시켜준 여신 두르가를 숭배한다. 흠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모이고, 선물과 축복을 주고받으며 모든 논쟁과 갈등을 접고 온전히 친교만을 위한 축제 기간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대개 한두 마리의 염소를 잡는데, 염소 한 마리 값이 보통 사람들의 한 달 치 월급이다. 거리에선 축제 행렬과 여신 두르가를 위한 '뿌자', 각종 종교적 의식과 피의 제사가 이루어진다. 삼색 띠로 치장한 승용차의 뿌자는 막 결혼식을 마친 신랑신부를 태우고 가는 차량처럼 보인다. 축제의 절정은 10일째 되는 승리의 날이다. 힌두교인들에 의하면, 이날은 힌두 신화에 나오는 비슈누의 현현인 정의로운 왕 라

마가 잔악무도한 악마의 왕을 죽인 날이며, 두르가 여신이 사자를 타고 나타나서 인간들을 도운 날이다. 사람들은 목욕재계하고 두르가 여신을 위한 제물과 선물들을 들고 사원을 찾아가는다. 힌두교도들은 이 승리의 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친척과 이웃사람들을 연장자 순으로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고 이마에 찍어주는 축복의 '티카'를 받는다. 불가피한 이유가 없는 데도 이 문안 인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큰 죄를 범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든 관계가 끊긴다. 티카는 생쌀가루와 빨간 염료, 요구르트를 이겨서 만든다. 고대의 티카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승리와 힘의 상징으로 쓰였으나 오늘날에는 복을 비는 의미로, 또 많

은 사람은 멋으로 한다. 힌두교도들은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하여 집안의 어려움을 피하고 사후에 인간으로 환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믿기 때문에 더싸인 기간 외에도 시시때때로 동물 제사를 드린다. 카트만두 시내를 벗어나 한참을 올라간 중턱의 '덕친 칼리'에서는 사람들이 꽃과 과일, 염소와 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린다.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개가 사람의 혼을 열라대왕에게 인도한다고 믿기 때문에 개를 제물로 쓰지 않을뿐더러 개를 숭배하는 축제도 지킨다. 목이 잘려 피를 흘리고 죽은 염소와 닭은 대조적으로 개들은 한쪽에서 평온하게 낮잠을 즐긴다. '개 팔자가 삼팔자'라는 말은 우리나라 개가 아니라 네팔의 견종을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전남대학교 명예교수·퍼탄의대 객원교수>

기고

일본 요코하마 공연을 다녀와서



김중채

지난 4일 오후 7시 일본 심장부 도쿄의 위성도시인 요코하마시 가나가와현립음악당에서 주 요코하마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광주시가 주최하고 임방울국악진흥회가 주관하는 우리나라 전통국악 공연이 열렸다. 제19회까지 열린 임방울국악대 대통령상을 비롯한 수상자들이 펼친 국악의 향연이었다. 공연의 평가 기준과 문화가 다른 외국에서의 공연은 국내에서보다 사투 초조하고 긴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초조와 긴장을 일시에 해소하는 장면이 연출되었

다. 음악당 현장에는 공연 수 시간 전부터 모여든 학생들과 젊은 남녀,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섰다. 공연이 임박하자 순서대로 입장을 시작하였고 전여명이 넘는 관중이 자기 순서를 바꾸려하거나 끼어드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1080명의 객석이 조기에 매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공연관람을 위해 질서정연하게 입장하였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1부가 끝나고 인터미션에 20분간의 짧은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공연관객들 중 음악회를 빠져나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2부 공연이 시작되자 미동조차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관람하고 한국전통문화에 관하여 하나라도 배우려는 자세로 경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고 신선한 충격이었다. 국악공연의 피날레는 심정전 단막극으로 시작되었다. 심봉사가 '아이고, 청아! 네, 얼굴이 보인다. 보아! 살아있는 내 딸, 정말 얼굴이 보이는구나!' 절규가 가깝게 말을 그리며 아버지의 애타는 곡조에 통하여 부가적인 설명도 국극도 아무런 장애가 되지 못했다. 감격에 겨운 사람들뿐이었다. 그야말로 무대와 객석이 하나로 호흡하는 공연이었다. 흥분인들도 우리 국민들도 눈물을 흘리고 훌쩍거리는 소리마저 감출 수 없이 마음 아파하는 모습에서 인간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공통의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공연이 막을 내리자 100여 명의 일본인들이 우리 고민 등이 예정에도 없던 선물을 전 출연진에게 증정하는 장면이 연출되었고 그

들 중 50여 명이 '2012년 임방울 국악제 기간에 광주를 방문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였다. 이는 우리 국악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단면이었다. 이번 해외공연은 계기로 우리 국악에 대한 관심이 대외적으로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국악에 대한 자세와 사고방식 행동을 바꿔야 할 것 같다. 국악을 주도하는 국악인 스스로 더 높은 이상을 향해 기량을 갈고 닦아 적게는 우리나라, 더 나아가 세계 만민의 사랑을 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국악을 사랑하고 즐기는 관람자들도 공연 관람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참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문화와 예술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계층이 두터운 사회가 국가와 인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다. 또 공연수익금 전액을 일본 동부지역 지진피해민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슬픔을 나누었다는 데 더욱 뜻깊고 마음 따뜻한 공연이었다. <사단법인 임방울국악재단 이사장>

고속도로 휴게소 실외도 금연지역으로 만들어야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면서 직접 마시는 연기보다 간접흡연의 독성이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 승용차로 이동을 하면서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주 들리는 편이다. 하지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화장실을 가거나 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다 보면 입구에서부터 숨을 참

아야 한다. 휴게소 밖 아무곳에서나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워대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당에서 먹는 식사 외에 각종 간식과 빵, 감자, 오징어 등 일반 음식을 사거나 먹는 장소는 전부 다 휴게소 실외에 있다. 음식을 사는 곳 바로 뒤에 앉을 수 있는

타자나 의자가 함께 비치되어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흡연자가 이곳에 앉아 담배를 피우니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여성들과 아이들은 음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있다가 골목거리기 일쑤이고 갑자기 뿜어져 나오는 담배 연기에 손사래 치기 바쁘다. 어린 아이는 아예 코를 붙잡고 다닌다. 가족들과 휴게소에 들릴 경우 아예 아이들은 차 안에 그냥 있으라고 할 정도다. 이용자들의 건강과 쾌적한 휴게소 환경을 위해 음식을 사는 실외부분도 모두 다 금연존으로 만들고, 흡연구역은 휴게소 뒤편에 별도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노정숙·광주시 서구 농성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최근 미국 스포츠계에서 소위 '도가니' 파문이 일파만파다. 유명대학 미식축구부 전직코치가 10대 소년들을 상습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파장은 수영계로까지 번지고 있다. 추문은 먼저 미식축구팀에서 일었다.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미식축구팀의 전직 수비코치였던 제리 샌더스키가 최소한 15년 간 8명의 어린 소년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다. 1999년까지 이 대학 수비코치를 지냈던 샌더스키는 불우한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자신이 설립한 자선단체에서 만난 소년들을 피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기야 대학이 사퇴가 그레이엄 스페니어 총장과 조 페터노 풋볼팀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 추문은 수영계로도 번졌다. 미국 인디애나 주의 수영클럽에서 활동하던 10대 소녀가 2년 전 코치로부터 성폭행당한 사건처리를 두고 주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선수 가족들은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코치를 비롯해 미국 수영연맹과 인디애나 주 수영연맹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선수 가족은 관련 조직이 학생을 충분히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법적 책임을 물은 것이다. 미국판 도가니 사건의 공통점은 성범죄가 발생할 당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이 묵과했다는 것이다. 샌더스키가 펜실베이니아주립대 미식축구팀 사위장에서 열 살짜리 소년을 나체상태에서 성폭행하는 장면이 당시 한 졸업생에 의해 목격됐으나 대학 측은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디애나 주 수영클럽 성폭행 사건에 대해 맹 측은 코치가 체포되기 이전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전해지는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를 되뇌게 한다. 사건 초기 적극적인 고발과 잘못을 바로잡으려 한 사건처리를 두고 주변에 대한 책임 문제가 불거졌다. /박지경 사회부장 unipark@kwangju.co.kr

미국판 '도가니'



Table with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information, including contact details and subscription rates.